“한국불교 새 역사 만들겠다 일념으로…”

■ 상월선원 체험관서 정진 윤성이 동국대 총장

방한복으로 무장해도 힘들어
14시간 앉아있는 것도 고통
한국불교 위해 발심한 스님들
건강하게 회향하길 진심 발원

위례 상월선원 스님들과 똑같은 청규로 정진하는 체험관이 문을 열면서 동참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선상신 전 불교방송 사장, 임명배 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처음으로 체험단 방부에 이름을 올렸다. 4명의 불자들은 12월7일 오후2시부터 이튿날인 8일 오전10시까지 정진하며, 난방도 안한 천막 안에서 굶고 묵언하며 상월선원 청규를 직접 실천했다. 8일 아침 체험관을 나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로 너무 힘들었다. 상월선원 스님들의 정진력에 새삼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체험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8일 상월선원에서 만났다.

체험관 정진을 마치고 상월선원 동안거 원만 회향과 동국대 발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

상월선원 상주대중인 효연스님이 체험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윤성이 총장이 보였다. 두터운 방한복과 목도리로 중무장을 하고 선 모습에 전날 밤 추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찬 기운과는 달리 환한 웃음을 지으며 체험관을 나온 까닭에 지난 시간이 무조건적인 고행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윤 총장이 바쁜 학교 일정을 조정하고 체험관에 입방신청을 한 것은 상월선원 대중 스님들의 깊은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외호대중으로 결제 전 봉은사 회의에도 함께 했던 그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스님들의 발심에 크게 공감했고, 스스로 힘을 보태고 싶어 동참했다”고 한다. 그는 쫓기듯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체험관에 앉아 대학 발전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장을 화두로 떠올리며 그간의 생각을 정리했다. 모처럼 고요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특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체험관 정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전4시부터 7시 사이에는 바깥과 온도차가 겨우 1도에 불과, 바람만 겨우 막아주는 천막체험관서 하룻밤은 길고 긴 시간이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급속도로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두툼한 목도리로 목을 감싸 겨우 체온을 유지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좌선이었다. 결가부좌가 익숙하지 않아 14시간 동안 정진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50분 정진하고 10분 방선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움직였지만 통증이 계속 따라왔다. “결가부좌를 하다가 다시 반가부좌를 하고, 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지만 골반도 아프고 다리 통증이 심해서 뭔가 집중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다”며 “몸이 아플수록 화두에 집중했다”고 했다.

학교 문제와 삶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통증을 잊기 위해 말 그대로 ‘버텼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야 하룻밤 버티면 그만이지만 상월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은 오랫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저만큼 고통스럽진 않겠지만 추위와 불편함은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걱정이 절로 들었다고 한다. 동시에 동안거 해제까지 무사히 정진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마음 속 깊이 발원했다.

추위와 배고픔, 고통을 잊고 체험관 정진을 마친 윤 총장은 “한국의 불교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 생애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총장으로서 대학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동국대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세계 100위 대학을 목표로 도약하는 동국대가 되기 위해 교수, 학생,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안함을 찾는 대신 어려움을 택해 치열하게 정진하는 상월선원 스님들의 의지를 이어 우리 구성원들도 학교발전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지난 7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7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이번 제7회 영축문화대상에는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스님이 학술문화상,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봉사실천상, 월드머시코리아가 포교원력상을 수상했다.

“통도사, 불교문화 발전 매진”

월하대종사 추모다례재 이어
영축문화대상·문학대상 시상
‘통도사지’ 새로 발간키로 해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생전 육성법문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설법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 2000여명이 숙연해졌다. 노천당 월하대종사 16주기 추모다례재가 지난 7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방장 성파스님, 주지 현문스님, 노천문도회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등 2000여 명이 동참해 대종사의 덕화를 기렸다.

방장 성파스님은 “스님 유지를 받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영축문화대상과 영축문학상 수상자들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다례재에 이어 월하대종사 유지를 받들어 불교문화 발전에 매진하기 위해 제정한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제7회 영축문화대상에는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스님이 학술문화상,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봉사실천상, 월드머시코리아가 포교원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제1회 영축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제1회 영축문학대상에는 ‘그리운 통도사’, ‘영축산에 올라’ 김희영 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현수 시인과 김미경 수필가는 영축문학상, 정말순 시인은 영축시낭송상을 각각 수상했다.

영축문화연구원(원장 현문스님)은 같은 날 경내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불보종찰 국지대찰 영축산 신편 통도사지 편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새로 편찬하는 통도사지는 사찰 역사와 신앙, 사리, 계율, 문수, 화엄 등 중심 사상, 창건 당시와 중창 과 현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도사 역대고승 법맥도 등을 정립할 예정이다.

유진상 부산울산지사장

“종단 표준의식 산중 정서에 맞게 정착”

덕숭총림 염불원, 매주 불교의례와 염불선 수행 특강

덕숭총림 수덕사 염불원(원장 지만스님)은 기해년 동안거 기간 동안 ‘불교의례와 염불선 수행’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12월2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열린다. 12월2일 열린 첫 특강에는 스님과 불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의례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이 ‘불교의례-염불원 수행 중심으로’를 강의했다.

이어 12월9일 염불 수행의 역사와 방향(동방문화대학원대학 이성운 교수) △16일 종단의례의 표준화 과정과 향후 과제(조계종 의례위원 주경스님) △23일 불교의식, 장단의 이해(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선각스님) △30일 상용의례(산중전통의례 위원장 혜연스님) △1월6일 상용의례(수덕사 염불원장 지만스님) △13일 종단표준 우리말 의례 강의 및 실습(화암스님) △20일 어산작법의 기초 실습 △28일 생전예수재 및 수륙재(동방대학원대학 이성운 교수)를 강의하며 2월3일 마지막 강의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스님의 염불과 선수행 주제 특강이 진행된다.

지난 2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화암스님이 불교의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은 “수덕사는 선지종찰로서 많은 다례와 의례가 있어 전통 산중의 염불의식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전통을 더욱 보강해 지켜나갈 것이며 종단의 표준의식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산중 정서에 맞게 정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덕사 염불원에는 기해년 동안거를 맞아 8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고 수행정진하고 있다.

이시영 충청지사장 lsy@ibulgyo.com

해인사 자비나눔으로 이웃에 온기 전달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지난 9일 해인사 가야포교당에서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및 다문화·한부모 가정, 장애우, 조손가정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해인사는 아동복지기금 1000만원, 조손가정, 장애우 가정 등 20가구에 각 50만원씩,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 군내 야로고, 삼가고, 초계고, 합천고 등 군내 6개 고등학교 2020년 대학 입학 예정자 가운데 각 학교당 1명씩 총 6명에게 각 25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국장 서봉스님은 “보시의 실천적 의미를 되살려 복지 활성화와 혜택의 균등화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이런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안명기 합천군 문화예술과장은 “해인사의 따뜻한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가정마다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9일 해인사 가야포교당에서 열린 아동복지기금 전달식.

이천운 경남지사장 woon3212@ibulgyo.com